

햇과일 출하전까지 과일값 강세 지속

정부 개입에도 물량부족 심화 7월까지 사과·배 출하량 감소 생육 양호 수확기 이후 안정세

전정부지로서 치솟은 사과와 배 가격이 햇과일 출하 전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다양한 가격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요 국산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과일 2024년 5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사과와 배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29.1%, 8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KREI는 사과의 5월 이후 출하량이 4만 4000 t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7월 출하량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9.1% 적고, 지난해 5월보다는 20.1% 감소한 양이다.

이에 따라 사과 가격은 햇사과가 나오는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선과실류를 비롯한 농축수산물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가 안정에 나서 소매가는 하락한 반면,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인한 공급량 및 저장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 사과 도매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달 사과(후지·상품) 도매가는 10kg 당 7만 7672원으로 전월(7만 9500원)보다 2.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4만 5399원)에 비해서는 71.1%, 평년(3만 4980원)과 견줘도 122%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햇사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저장량 감소 등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사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저품위 사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KREI는 전망했다.

더불어 KREI는 지난달 기준 전체 농산물 중 가장 가격 상승률이 컸던 배 역시 햇과일이 출하되기 직전인 오는 7월까지 출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배 예상 출하량은 4000 t으로 전년 대비 8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배 출하량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데 이어 출하량 감소세가 햇과일이 나오는 시기까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배 역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REI는 배 농가들이 지난해 수확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을 겪어 공급량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서 시장에 배 저축분을 앞당겨 공급했던 만큼,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배 예상 도매가는 15kg 당 11만 1080원으로 전월(11만 2462원)보다는 1.2% 감소했지만, 전년(3만 8925원)과 평년(4만 7674원)에 견줘서는 각각 185.4%, 133% 오른 것으로 KREI는 봤다.

다만,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일들의 올해 생육상황이 전년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이면서 올해 수확기 이후에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REI 관계자는 "사과와 배의 경우 올해 4월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저온 피해가 없었고, 병해충 발생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생육 상황이 지난해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잦은 강우 등으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적기 방제 등 생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날씨 탓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기상이변이 부른 봄철 폭우 피해 기후재난 대책 시급

농사꾼이 날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순리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신념에서지만,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오락가락하는 비와 같은 자연 현상을 가지고 맘 상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농사를 하는 바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데 요즘 날씨 꼴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틀렸고,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달 19일은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穀雨)였다. 곡우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순쯤으로 양력 4월 중순에 해당한다. 곡우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를지게 한다는 의미다.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도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곡우에 모든 곡물이 잠을 깬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가 마른다',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된다' 같은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속담이 전해진다.

등숙기에 접어들어 보리와 귀리 밀은 초토화했고 사료작물은 수확을 포기했다. 이미 결속한(근포 작업) 사료도 비에 젖어 논에서 썩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농민들이 거리에 나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날씨는 기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며 마늘은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이 심각하고 양파는 뿌리 썩음병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예측 못 하는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마철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한파로 발생한 냉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상 이변에서 오는 폭염과 폭우 등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조량 부족 등 이상 기후로 하우스 재배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곡우엔 비는 안 오고 25도가 넘는 초여름 더위에 황사와 오존이 기승을 부렸다. 때 이른 더위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고온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행히 이를 뒤인 주말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풍년 농사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정작 놀랄 일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입하에 생겼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하필 청명해야 할 이날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하루 동안 최대 2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전남지역은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고흥에서는 조생 배 80ha가 침수 피해를 봤고, 강진과 해남에서는 맥(보리)류 85ha가 비바람에 쓰러지는 도복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

실제로 지난해 11월 수박 모종을 심어 아담해 4월 말에 수확하는 경남 함안 지역 내 축성재배(봄 수확) 850농가(592ha) 대부분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확인돼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수확량이 준 것은 물론이고, 수박 1개 무게가 평년 평균 4~5kg에서 올해는 절반에 그치면서 상품성도 떨어진 탓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설작물뿐만이 아니다. 노지채소 피해도 시작됐다. 수확을 두 달여 앞둔 중만생종 양파에서 무름병·노균병 등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를 비 오는 날이 많아 과습 상태가 된 데다 일조량 부족, 일시적 한파까지 더해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오락가락 비정상적인 날씨에 비용은 더 들어갔는데 수확량 감소로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 농가들이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 지경이니 하늘 탓, 날씨 탓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bigkim@kwangju.co.kr



광주농협, 어린이 딸기 수확체험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10일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과 광주시 북구 용강동 딸기 재배농가에서 어린이 딸기 수확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이현호 본부장, 구상봉 조합장과 건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광주 대표 딸기 브랜드인 '오매 자산딸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하우스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실시했다.

어린이들은 농촌에서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며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현호 본부장은 "딸기 수확 체험을 통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린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협, 광주대와 농촌 봉사활동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0일 곡성군 옥과면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농협 임직원, 광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70여 명이 참여해 영농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 전남본부는 매년 대학교 봉사단과 함께 영농지원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고령농가와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손을 지원 받은 정환주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올해엔 품질 좋은 과수가 많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남농협은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수부, 오징어·고등어·갈치 등 정부 비축물량 5천t 공급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주요 어종 생산이 적은 여한기(5~6월)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 물량 5000t을 시중에 풀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명태 3000t, 고등어 700t, 오징어 300t, 갈치 900t, 참조기 130t, 마른 멸치 20t 등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달 수산물 할인 지원에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19일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열고 있다. 소비자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3~14일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서울 홀푸드스영도점 방문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에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